

국립법무병원

○ 매체 : 주간조선(2026. 7. 5.)

○ 제목 : 이영렬 국립법무병원장 “참교육보단 재범 안 하도록 돕는 게 최선의 투자”

[인터뷰] 이영렬 국립법무병원장 “참교육보단 재범 안 하도록 돕는 게 최선의 투자”

| 정신질환자 교도소행 10년 새 2배...인프라 없는 수용 확대는 치료 아닌 학대



“지옥 같은 처벌을 받고 나간 가해자가 재범을 저지른다면, 그것이 내 가족의 안전에 더 낫다고 할 수 있나?”

이영렬(65) 국립법무병원장의 일침이다. 그는 분풀이식 처벌보다 확실한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진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시설을 이끄는 그의 개인적 서사도 남다르다. 조현병을 앓았던 어머니와 국가유공자 아버지를 둔 그는 ‘정신과와 ‘공공의료’의 교집합을 찾아 이곳을 마지막 소임지로 택했다. 국립법무병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약물중독 등을 앓는 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와 감호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현장의 현실은 처절하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질환자들이 교도소로 물리는 풍선효과가 생겼다. 지금은 또 사법부가 치료감호 청구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정작 이곳의 의사 현원은 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원장은 “이 정도면 현원이 채워진 편”이라며 “인프라 없는 무조건적인 수용은 치료가 아닌 학대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1995년 의무직 공무원으로 공공의료에 첫발을 내디딘 후 국립공중병원장과 국립부곡병원장을 거친 이 원장. 올해 연임에 성공한 그는 병원 개원 40주년을 앞두고 최소한의 ‘병원다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마지막 임무라고 말한다. 다음은 지난 6월 17일 국립법무병원에서 만난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 교정시설(교도소) 내 정신질환 환자가 10년 새 2배가 됐다. “2017년에 말 많던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당시 내가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원장이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안 없이 인권만 앞세워 정신병원 입원을 막아버리면 결국 이 환자들이 다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교도소로 가면서, 지난 10년 동안 교도소 내 정신질환자가 2배로 급증했다. 정신병원에 입원이 안 되니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법 체계가 개입해 교도소로 간 것이다. 현재 전국 교정기관들을 보면 교도관들이 힘들어서 난리가 났다. 앞으로 풀어야 할 큰 숙제거리가 됐다. 정신질환이나 발달장애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일정 비율로 발생한다.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 국립법무병원은 병원인지, 아니면 교정시설인지 헷갈린다. “이곳은 당연히 교정시설이 아니다. 교정시설이라면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는 의료기관 인증 4주기까지 통과한 엄연한 의료기관이다. 교정과 교화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자유형(징역 등)을 집행하는 교정본부에서 쓰는 말이다. 이곳에 오는 피치로감호자는 사법부 판사로부터 ‘잘잘못을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심신미약 등을 인정받아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온 사람들이다.”

- 이곳에 있는 피치로감호자들의 주된 범죄 유형은. “지난 5월 기준 이곳에 있는 피치로감호자는 총 824명이다. 주된 범죄 유형 중 살인이 275명(33.4%)이다. 정신질환 종류는 조현병이 496명(60.2%)이다. 요약하면 조현병 환자가 살인을 한 경우가 이곳의 가장 대표적인 환자 집단이다.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가해자나 최근 일본도 살인 사건 가해자 등 언론에 나오는 조현병 강력 범죄자들은 대부분 여기에 있다.”

- 2023년 관악산 성폭행 살인사건의 최윤중이나,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흥기 난동 사건의 안인득이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음에도 교도소로 간 이유는. “재판부는 이들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치료감호 처분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는 것도 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치료감호 처분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법무병원이 아닌 진주교도소로 이송된다. 진주교도소는 국내 교정시설 중 유일하게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이다.”

- 최근 현장에서 피치로감호자들의 질환 유형이나 범죄 양상에 변화가 있는가. “정신질환 강력범죄 비율은 늘 비슷하다. 언론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다가 대전 여교사 살인 사건처럼 센세이셔널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관심이 몰린 것뿐이다. 사회가 어지러워져서 갑자기 흉악범이 엄청 늘어난 것은 아니다.”

- 사회 내 정신질환자 증가세가 법무병원 환자수에도 영향을 미치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가 늘어도 재판 절차를 거쳐 심신미약을 인정받기까지 수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다. 또한 입원할 수 있는 정원이 한정돼 있어 사회적 여파가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다. 민간 병상이 원래 1200병상이었으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위생과 환자 이격 등을 고려해 800~850병상 수준으로 조정해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연도별 추이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다. 작년 평균 800명에서 현재 약 840명이며 내년 이맘때는 900명 정도가 될 것 같다.”



- 치료감호가 끝난 환자들의 퇴원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 “나간 뒤 10년 동안 법무병원에 방문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국고에서 지원된다. 우리 병원뿐 아니라 복지부 산하 5개 국립정신병원 어디서나 가능하다. 법무병원 출신 환자들이 일반 병원에 가면 사회적 시선 때문에 불편해하기도 하고, 장기 수용 생활로 이곳 치료 환경에 익숙해져서 찾아온다.”

- 현재 법원행정처가 치료감호 청구 요구 권한을 적극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 피치로감호자가 늘어날 것이다. 기존과 달리 재판을 맡은 판사가 검사에게 직접 치료감호를 청구하라고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인력과 시설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도 한계다. 특히 의사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재 현원은 약 11명으로 절반 가까이 결원이다. 과거에는 정원 대비 결원율이 50%를 넘기도 했다. 지금은 그나마 반은 채운 상태다.”

- **의사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일은 많고 돈은 적게 주기 때문이다. 현재 임금이 민간 대비 70~80% 수준까지 많이 따라왔다. 그러나 여전히 일의 양이 과중하다. 로스쿨 졸업생들이 대형 로펌을 선호하고, 전문의들이 대학병원 교수를 선호하는 이유는 급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영역 구축과 스펙을 쌓기 위해서다. 즉 ‘자기개발의 모티베이션’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퇴원 후 경제적 이득으로 연결되지 않아 따로 데리고 나가 개업할 수도 없다. 그래서 내가 부임한 뒤 의사들에게 이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의사 정원 기준 자체부터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

-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 병원이 1987년에 세팅됐다. 당시에는 정신건강복지법(1995년 제정)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내가 1995년에 의무직 공무원을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의 정신과 수준은 환자에게 밥 주고 약 주고 얼어 죽지 않게만 하면 됐다. 대형 정신병원에서는 침구 대신 가마니를 줬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몇천 명도 수용은 가능하다. 우리 부지가 9만평(약 29만7520㎡)이나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걸 병원 서비스라고 부르지 않는다. 의사 진료, 간호 처치, 각종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서비스 수준과 환자 요구도의 갭을 무시하고 환자만 보낸다면, 그건 학대다. 현실적으로 이곳을 병원스럽게 만들어주고 직제를 늘리고 인건비를 더 책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국가가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의지 문제다.”

- **현재 대한민국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현실은 어떤가.** “내가 1991년 정신과 전문의였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지니 공공의료나 필수의료가 더 커지고 대접받을 줄 알았으나 착각이었다. 당시엔 피부과에 대상자가 없어 ‘피부비뇨기과’로 묶여 있었고 미용성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낙후된 곳이 됐다. 잘나가는 의사들은 다 피부과, 성형외과로 가버린다.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공의대를 만드느니 어쩌니 하지만 사실 해법은 심플하다. 인간은 동기를 갖고 움직이므로 공공·필수医료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까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해주면 된다.”

-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챙겨준다는 사회적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나 역시 국민이고 네 살짜리 손주와 두 딸, 아내가 있는 평범한 가장이다. 국민을 위한 최고의 선(善)은 범죄자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예방하고 재범을 막는 것이다. 가해자에게 처벌과 응보를 가해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만들어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 자가 형기를 마치고 나가자마자 또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이 내 가족의 안전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참교육’처럼 응보적 정의 구현 시각보다는, 국가 자원을 투입해 범죄자가 사회에 나와 재범을 안 하도록 효율적인 산출물을 내는 것이 진짜 국민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투자다. 사회에서도 이러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챙겨준다는 사회적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나 역시 국민이고 네 살짜리 손주와 두 딸, 아내가 있는 평범한 가장이다. 국민을 위한 최고의 선(善)은 범죄자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예방하고 재범을 막는 것이다. 가해자에게 처벌과 응보를 가해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만들어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 자가 형기를 마치고 나가자마자 또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이 내 가족의 안전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참교육’처럼 응보적 정의 구현 시각보다는, 국가 자원을 투입해 범죄자가 사회에 나와 재범을 안 하도록 효율적인 산출물을 내는 것이 진짜 국민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투자다. 사회에서도 이러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 **국립법무병원장을 연임한 까닭은.** “내 선친께서 한국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을지무공훈장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라 현재 서울현충원에 계신다. 그런 영향으로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었다. 또한 나의 모친이 조현병 환자시다. ‘정신과’와 ‘공공의료’라는 두 가지가 결합돼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여기가 내 마지막 직장이 되어버렸다. 그냥 이게 무덤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내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내년 병원 개원 40주년과 대충 맞물린다. 40년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최소한의 병원다운 시스템 세팅을 완수하고 퇴임하는 것이 내 마지막 소임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투자하는 것은 가성비가 높은 사회적 리턴이며 국민들이 결코 손해 보는 투자가 아니다. 굳이 공공의대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이미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된 인력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다. 예순이 넘는 나이에도 점심때를 잊은 채 환자 치료에 몰두하는 의사들이 이 낙후된 현장들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